무안군, 2019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 선정

무안읍 성내·성동·성남·교촌리 '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구축

무안군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식품부가 협력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금년 12월까지 정부출연금 18.4억, 민간부담금 6억 규모로 해당 대상지인 무안읍 중심지 성내리, 성동리, 성남리, 교촌리에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대상마을에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로 농촌 경작지를 자율비행 하면서 취득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농작물 생육상태를 지역 농민에게 알리고,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3종)로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해 마을 환경 모니터링(미세먼지, 오존, 악취, 수질, 300개 센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5개 의 안내판에 정보를 제공한다.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3종)를 통해 독거노인, 복지사와의 정보 소통은 물론, 가정 내 온·습도와 움직임 데이터 등 라이프로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강관리, 생활물품·음식 주문과 교통편 호출, 민원 등 간단한 어르신 심부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 쓰레기통(20개, 100리터 규격) 서비스로 무안군내 100여 개 쓰레기 공동 집하장 현황을 400개 이상의 IoT센서로 관리하고, 드론에서 수집된 영상 분석을 통해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파악하여 최적의 쓰레기통 배치 방안 및 수거경로를 제시한다.

이밖에도,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무안군에 구축되는 서비스 체험관(4종 이상, VR기반 컨텐츠 제공)을 교육목적으로 제공하고 IoT업체들에게 현장 실증환경(IoT Extension, 500여곳 이상)을 공유하며, 서비스 수집·분석 정보를 관내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생산량 예측으로 가격의 안정화 도모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영농폐기물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제12회 강진야생수제차 품평대회' 성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 깃든 사의재서 개최

강진차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제12회 강진 야생수제차 품평대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사의재 저잣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야생수제차 품평대회는 처음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사의재에서 개최되어 강진차의 전통을 계승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지난 21일부터 출품된 51점에 대한 선별 분류작업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22일 품평대회가 진행됐다. 품평대회에 앞서 강진차를 빛내준 모든 차인들과 다산선생, 초의선생, 혜장선사, 이한영 선생을 위한 헌다례 행사가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이건섭 부군수, 도·군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차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청조루 뒤편 메인행사장에서 진행됐다.

51점이 출품된 대회 심사는 한국차문화학회장 박희준 심사위원장과 추민아 남부대학교 교수, 유동훈 목포대학교 국제차문화·산업연구소 연구원, 김종덕 목포대학교 차문화과학과 외래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나섰다.

300만원 상금이 주어지는 대상에는 녹차를 출품한 군동면 시목길 조현숙씨가 차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장마철 대비 농작물 사전관리요령 강조

집중호우·강풍 피해 예방 위해 배수로·시설물 점검

영암군은 금년 장마를 대비하고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장마 전 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관리를 하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물에 잠겼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벼가 물에 잠겼을 경우, 벼 잎 끝만이라도 물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논물을 빼 공기와 접촉 시킨다. 물이 빠진 뒤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노지재배 작물은 줄 받침대를 설치해 강풍에 의한 쓰러짐을 예방한다.

많은 비로 겉흙이 씻겨 내려가 작물의 뿌리가 땅 위로 나왔을 경우에는 신속히 흙을 덮어주고 바로 세워준다.

과수원은 강풍과 비바람이 예보될 경우에는 미리 가지를 유인해 묶어주고, 원줄기에는 지주목을 설치해 쓰러짐을 대비 한다.

시설하우스는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우스 주변에 배수로를 만들고, 비닐 교체가 예정된 하우스는 미리 비닐을 제거해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천사섬에 반하다展' 개최

내달 18일까지

신안군은 7월 18일까지 25일간 신안군 암태면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천사섬에 반하다展을 개최한다.

천사대교개통과 동시에 신안군 중부권으로 향하는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지면서 볼거리 제공과 군민 문화향유를 위해 암태면에서 열리는이번 전시회는 신안군이 주최하고 신안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술작품 전시회다.

전시내용은 제5회 신안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작품들과, 지난 4월 신안 튤립축제장에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제5회 전국학생튤립사생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작들을 전시한다.

작품으로는 회화작품 27점 조각작품 2점, 학생사생우수작 19점, 신안군 소장미술품 20점 등 총 68점이 출품되어 전시된다.

신우철 완도군수, '공감 미팅 day' 개최

완도군은 지난 24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신규 직원들과의 소통·화합·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감 미팅day'를 열었다.

'공감 미팅 day'는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열린 공감 미팅 day'는 사무실을 벗어나 장보고동상 야외 정자에서 진행됐다.

먼저 신규 직원들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며 느꼈던 점, 궁금한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직원들의 질문 사항으로는 자유출장제 활성화, 점심시간 음악 방송 실시, 퇴근 후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확대, '전복느타리버섯' 육성, 기후변화로 인한 전복 양식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복느타리버섯의 경우, 완도의 브랜드 버섯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행복하고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실시

진도군이 지역 고령화 등 약물 복용량 증가로 인해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자와 복합질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예방적 복약지도를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을 지난 5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총 5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복합질환자, 거동불편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협압·혈당 등 건강 기초검사·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 잘못된 약물 복용의 부작용 예방교육과 약 보관방법, 건강관리 요령, 치매·우울증·흡연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구급함, 구충제, 파스, 소독약 등 상비의약품과 약물오남용 책자 등을 배부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다제약제복용자와 독거노인, 활동불편자 등을 위해 의약품 전문 인력과 함께 현장 방문으로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해 홍보하는 등 건강한 군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연간 미생물 600톤 무상 보급

해남군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군민들에게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배양관 운영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유특허 미생물을 무상으로 기술이전받아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시기에 맞는 미생물을 연간 600톤 규모로 생산·공급해 오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인 요즘은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탄저 예방균 및 돌발 해충에 대비한 BT균, 식물영양분 공급을 위한 클로렐라를 생산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1일 3톤 규모로 BM활성수를 생산·공급하고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